

구해줘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지난달 30일 OCN 드라마 '구해줘 2'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조재윤(왼쪽부터), 임하룡, 천호진, 이숨, 한선화, 엄태구, 김영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OCN '구해줘 2' 8일 첫 방송

종교 이용해 평화로운 마을 '낙시질' 하는 과정 그려

2017년 OCN이 방송한 '구해줘'는 여러모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사이비 종교를 현실적으로 다룬 데 더해 사이비 교주를 연기한 조성하(백정기 역)의 백발이나 사람을 흘리는 강연 등이 화제가 되며 '될지어다' 같은 유행어까지 탄생시켰다.

OCN은 지난 시즌 호평에 힘입어 약 2년 만에 새로운 시즌을 내놨다. 지난 시즌처럼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하지만 출연진이 엄태구, 천호진, 이숨 등으로 대거 바뀌어 새로운 내용을 예고했다.

시즌1이 워낙 화제몰이를 한 만큼 시즌2 출연진은 부담감을 숨기지는 않았다. 천호진은 30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속

편은 어느 작품이든 한계를 가진 게 분명하다. 시즌1에서 특히 연기를 정말 잘해 주셔서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에서 서글서글한 인상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함을 갖춰지만 의문스러운 교회 장로 최경석을 연기한다.

천호진은 그러면서 "시즌2는 시즌1의 프리퀄 같은 느낌"이라며 "인간의 악한 본성은 결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기꾼과 사이비는 그럴 잘 벗겨내기 때문에 사람을 흘린다고 생각한다. 시즌2는 그러한 인간 본성과 욕망을 잘 담았

다"라고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어 "시즌1의 백정기와는 다르다"라고도 설명했다.

그와 대척점에 설 김민철 역 엄태구는 "첫 주연이라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서 연기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1에서 사이비 교단 집사로 출연한 조재윤은 이번 시즌에서는 파출소장으로 분한다.

그는 "악인지 선인지 헷갈리는 캐릭터"라며 "시즌1에서의 잔인한 표현보다는 심장이 쫓기해지는 이야기가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출을 맡은 이권 PD는 시즌1과의 차별점에 대해 "시즌1은 이미 사이비 종교가 한 마을을 포섭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시즌2는 종교를 이용해 평화로운 마을을 '낙시질'하는 과정을 그린다"라며 "어떤 면에서는 코미디 소동극 같은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PD는 또 '구해줘2'가 일부 기독교 단체로부터 상영금지 가져본 신봉을 받았다는 한국스포츠크즈 보도에 대해서는 "종교와는 무관한 이야기이다.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작품은 그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작품에는 천호진, 엄태구, 조재윤 외에도 이숨, 김영민, 임하룡, 오연아, 우현 등도 출연한다.

8일 밤 11시 첫 방송. /연합뉴스

은퇴 앞둔 이미지 다큐 '내 노래 내 사랑 그대에게'

TV조선 오늘 밤 10시 방송

발표곡은 2500곡, 히트곡만 해도 400곡.

TV조선은 1일 밤 10시 살아 있는 한국 전통가요의 전설, 이미지(사진)의 모든 것을 담은 다큐멘터리 '이미지 노래인생 60년-내 노래 내 사랑 그대에게'를 방송한다고 30일 예고했다.

19세에 '열아홉 순정'을 부르며 혜성처럼 등장해 무려 60년 동안 톱스타 자리를 지킨 이미지.

그는 데뷔 60주년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국내외 특별 공연을 마친 뒤, 가요계를 떠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이미지가 직접 "팬들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의 사생활은 물론 히트곡에 담긴 뒷이야기, 팬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한 과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방송 처음으로 그의 집과 살림하는 모습 등도 공개된다.

이밖에도 데뷔 시절 영상과 파독 광부,



간호사, 베트남 전쟁 위문 공연 등 모습이 공개되며 '기러기야애', '동백야개씨', '섬마을 선생님', '여로' 등 수많은 히트곡도 다시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수많은 팬을 매료시킨 이미지 목소리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가 한국 가요사에 남긴 족적을 평가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내레이션은 후배 가수이자 브라운아이 드루소를 리더 정영이 맡았다.

TV조선은 특집 다큐를 다음 달과 6월 연이어 방송하고, 16일 오후 7시에는 콘서트 실황도 공개한다. /연합뉴스

영화 '극한직업' '악인전' 할리우드 리브콜

영화 '극한직업'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 등은 '극한직업'의 할리우드 버전이 제작된다고 보도했다.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할 극한직업은 CJ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공동 제작하며 배우 케빈 하트가 제작에 참여한다.

케빈 하트도 자신의 SNS에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주연 역시 케빈 하트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각색은 시나리오 작가 트레이시 윌리버가 맡는다.

'극한직업'은 마약반 형사 5인방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장업한 치킨집

이 전국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일인 담은 코미디 영화다.

한편, 영화 '악인전'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가능성이 대두됐다. '악인전' 측은 30일 "미국 제작사 측에서 리메이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제72회 칸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이 영화는 이미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등 총 104개국에 수출됐고, 전 세계 항공 관련 계약도 성사됐다.

'악인전'은 우연히 연쇄살인마 표적이 됐다가 살아난 조직폭력배 보스(마동석)와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형사(김무열)가 함께 연쇄살인마 K를 쫓는다는 내용의 범죄 액션물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여름이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더 뱅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닥터 프리즈너(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더 뱅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제40회 근로자 가요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차종우물 만국 유람기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30 구해줘! 홈즈 1~2부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파파파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0 KBC 저녁뉴스 55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55 법률 365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55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이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차종우물 만국 유람기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00 닥터 프리즈너	00 더 뱅커	00 빅이슈
[11]	35 UHD 슈퍼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400회 기획 글로벌 특집)(재)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스포츠 다이어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타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엄마 까투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7:30 꼬마버스 타요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7: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15 꼬마하어로 슈퍼맨
07:30 꼬마버스 타요	(캠핑지 피리고추조림과 파프리카된장무침)	19:30 EBS 뉴스
08:00 당동맹 유치원1~2	13:40 미래교육 플러스(재)	19:50 사건 브리핑 - 안전상황실
08:30 책과 판(재)	14:30 명장고 나라, 코코몽	20:40 세계테마기행
08:45 랄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노래가 흐르는 남미 기행 3부 삶을 노래하라 칠레 바닷길 여행>
09:00 엄마 까투리	15:15 출동! 파파마 삼총사	21:30 한국기행
09:30 몰랑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봄, 청춘을 만나다 3부 흐르는 강물따라>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16:15 출동! 슈퍼맨(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뿌우(재)	22:45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참치두부 스테이크>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23:5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오늘의 부실함은 미래에 약점의 발미를 제공한다. 48년생 앞만 보고 진행하라. 60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72년생 똑 같은 현상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84년생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전연 다른 국량이 된다. 행운의 숫자 : 66, 31</p>	<p>午 42년생 천재일우의 귀중한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54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순리이다. 66년생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해 보자. 78년생 재반 여건을 조성하고 불 일이다. 90년생 과단성 있는 집행이 모든 문제점들을 종식 시킨다. 행운의 숫자 : 31, 52</p>
<p>丑 37년생 참으로 의미 있는 기회가 보인다. 49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61년생 여태까지 오던 길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것을 알라. 73년생 내실을 기해야 후회하지 않게 된다. 85년생 한 곳에 몰입해야만 양호한 결과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6, 79</p>	<p>未 43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방심하면 아니 된다. 55년생 여단수족의 환경에 처한다. 67년생 바야흐로 길경을 맞이하게 되리라. 79년생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91년생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5, 25</p>
<p>寅 38년생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기탄 없이 행해 보라. 50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62년생 식견이 풍부한 이와 함께 하자. 74년생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을 수 있다. 86년생 해법을 강구해 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1, 88</p>	<p>申 44년생 곧 안정될 것이니 열려 말라. 56년생 도움을 주는 이가 있다. 68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만 자유로운 운옹이 가능하리라. 80년생 눈앞에서의 현혹은 허황된 것이니 빨리 접수를록 이익이다. 92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36</p>
<p>卯 39년생 조기에 내린 판단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낫다. 51년생 서두르다보면 실수하게 된다. 63년생 태평성대이니 매사가 길하리라. 75년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하다. 87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급적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4, 35</p>	<p>酉 45년생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57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69년생 뒤쫓아 있을 수도 있으니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선수를 가리는 것이 유리하다. 81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93년생 실익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30, 43</p>
<p>辰 40년생 고생은 되겠지만 보람이 있을 것이다. 52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한 흐름을 보인다. 64년생 전혀 보지 못했던 특이점이 나타나리라. 76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88년생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해 봐야 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70</p>	<p>戌 34년생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46년생 내용성이 없다면 그저 공허할 뿐이리라. 58년생 그대로 놔두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70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지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82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95</p>
<p>巳 41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행하라. 53년생 대다수가 원한다면 따르는 것도 무방하다. 65년생 절차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77년생 추진하고 있던 일이 지연되면서 기다리게 되는 위상이다. 89년생 가까스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13, 03</p>	<p>亥 35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47년생 전환점을 마련할 만한 단계에 임하라. 59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한 분석이 철저이 이뤄져야한다. 71년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83년생 계속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98</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항영! ☎010-9790-8237